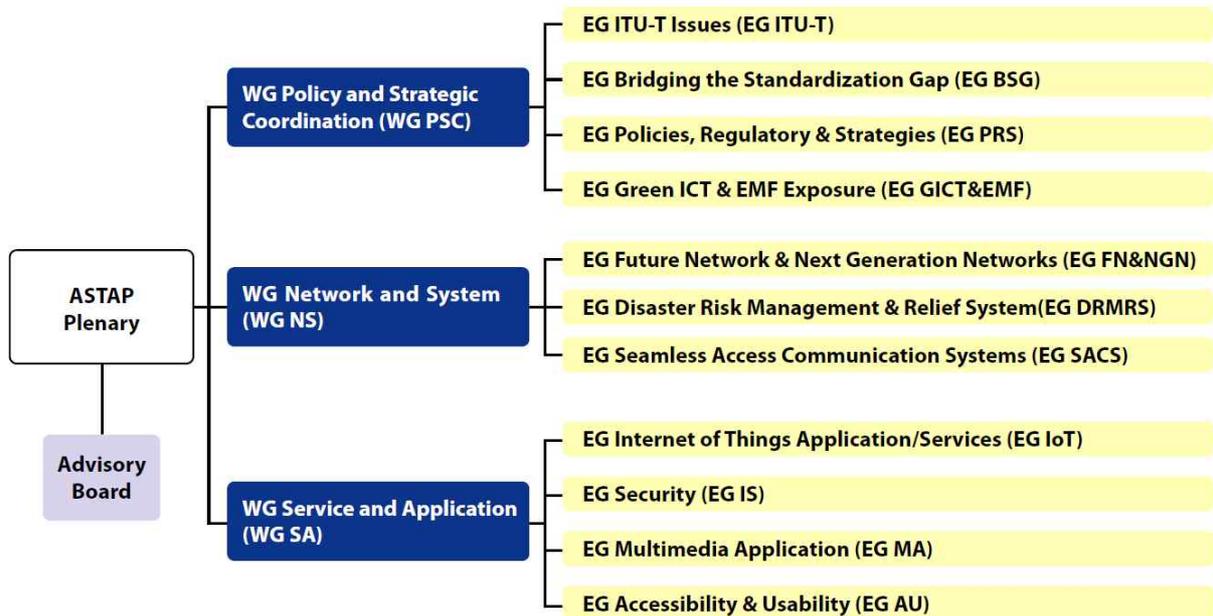


APT ASTAP-35 및 WTSA-24 대응준비반 1차 국제회의

박준환 TTA 책임연구원

1. 머리말

APT 표준화 프로그램(ASTAP, Asia-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은 아태지역 전기통신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아태지역 전기통신 협의체(APT, Asia-Pacific Telecommunity) 산하에서 표준화 분야를 담당하는 하위 그룹이다. 이번 35차 ASTAP 국제회의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렸으며,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 회의로 진행되었다. 또한 2024년 개최되는 ITU WTSA-24(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의 아태 지역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WTSA-24 대응준비반 1차 회의도 4월 21일 함께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 21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여 ASTAP 및 WTSA-24 대응준비반의 의장단을 수임하고, ASTPA 신규 전략 논의를 위한 TF 구성 및 APT 기술보고서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1] ASTAP 구조도

2. ASTAP 개요

APT 산하에서 ICT 표준 관련 논의를 위한 그룹인 ASTAP은 1998년 설립되어 아태지역 차원의 ICT 표준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ASTAP은 총회 산하에 정책 및

전략(PSC)·네트워크 및 시스템(NS)·서비스 및 응용(SA) 등 3개 작업반(W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업반별로 산하 3~4개의 전문가 그룹(EG, Expert Group)에서 세부 기술 분야를 논의한다. 현재 ASTAP 의장은 한국에서 수임하고 있으며, 산하 WG 및 EG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의장단이 구성되어 표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3. ASTAP 주요 회의 결과

3.1 ASTAP 총회

기존 ASTAP 의장은 2019년 11월부터 한국(ETRI 김형준 전문위원)이 수임하고 있었으며, 이번 회의에서 연임이 승인되어 2025년까지 의장직을 맡게 되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ASTAP의 구조 개편 및 향후 전략 논의를 위한 특별그룹이 신설되어 해당 그룹의 의장을 한국(ETRI 이승윤 센터장)이 수임하게 되었다. 이 특별그룹은 내년 ASTAP 회의 전까지 온라인 회의를 통해 구조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이 총회 및 특별그룹의 의장을 수임함에 따라 향후 ASTAP 운영에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2 산업 워크숍

ASTAP은 회원국의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ASTAP 회의 기간 동안 산업계 워크숍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AI·메타버스·오픈소스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중·일 및 ITU 등에서 발표를 진행하였고, 한국에서는 ETRI, 엘에스웨어, 인본정책연구원 등에서 세션을 맡아 발표를 진행하였다. ASTAP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아이টে를 중심으로 신규 보고서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3.3 그룹별 결과

3.3.1 정책 및 전략 작업반(WG PCS)

WG PSC 산하에는 ITU-T 협력(ITU-T), 표준화 격차 해소(BSG), 정책·규제 및 전략(PRS), 그린 ICT 및 전자파(GICT&EMF) 등 4개의 전문가 그룹(EG)이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BSG 및 GICT&EMF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EG BSG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표준화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그룹이다. 한국 주도로 개발한 '국가표준 개발 시 국제표준 참조 가이드라인' 문서가 2021년 개정 이후 추가 개정 수요가 없어 이번 회의에서 개발 종료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COVID-19등으로 이슈 발굴이 부족하였음을 이유로 차기 회의까지 작업 유지 및 기고서 제출을 독려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표준화워크숍을 통해 한·중·일 표준화 기구의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개도국의 표준화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차기 ASTAP 회의에서 APT 회원국의 표준기술 교육 추진을 검토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하였다.

EG PRS는 국가 간 표준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는 그룹이다. 이번 ASTAP 기간에는 별도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간 활동이 저조하여 EG BSG와 통합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가 PRS는 각국의 정책 및 규제를 다루는 중요한 그룹이라는 이유로 통합을 반대하였고, 차기 회의에서 베트남 주도로 PRS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는 기고서

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EG GICT&EMF는 주로 환경 및 전자파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그룹으로 이번 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개발 중인 두 건의 보고서가 개정 승인되었다. '전자폐기물과 희소금속 표준활동 현황 보고서'는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과 같은 희소금속의 처리 방법과 관련된 국가별·지구별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네팔·인도네시아 등 다수 국가에서 관심이 있는 문서이다. 이번 회의에서 개정이 승인되었으나 차기 회의에서 네팔이 추가 기고서 제출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계속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태지역 EMF 인체노출 관련 활동현황 보고서"는 기존에 제정된 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5G네트워크 상용화에 따라 5G 기지국의 전자파 측정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이번 회의에서 개정안이 승인되었다. 국제적으로 5G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도 개발 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차기 회의에서도 추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G ITU-T는 이번 회의에 제출된 기고서나 개발 중인 문서는 없었으나, ITU-T 각 연구반 별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아태지역 회원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3.3.2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작업반(WG NS)

WG NS는 미래 네트워크(FN&NGN), 재난 관리(DRMRS), 심리스 통신(SACS)등 4개의 산하 EG로 구성되어 있다.

EG FN&NGN은 미래 네트워크 및 차세대 네트워크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그룹으로 현재 한국 주도로 '신뢰 인덱스 적용 가이드라인' 문서가 개발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뢰 인덱스와 관련된 ITU-T의 활동을 소개하는 기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2년 뒤 최종 완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외에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5G 및 이후의 통신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아태지역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5G 통신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해외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G DRMRS는 재난 관리 및 안전 통신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그룹으로 특히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을 중심으로 문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에서 개발 중인 재난 상황의 통신 서비스 보고서에 대한 개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지진이나 수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문서 개발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G SACS는 심리스 통신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는 그룹으로 현재는 일본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문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RoF 네트워크 및 광-무선 심리스 네트워크 보고서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문서 개발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개발 현황 파악 정도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3.3 서비스 및 응용 작업반(WG SA)

WG SA는 사물인터넷(IoT), 정보보호(IS), 멀티미디어 응용(MA), 접근성 및 사용성(AU) 등 4개의 EG로 구성되어 있다.

EG IoT는 사물인터넷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그룹으로 태국·말레이시아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IoT를 응용한 의료 서비스 등의 보고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아태지역 IoT 생태계 구축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이 승인되었다. 또한 EG IoT의 활동 영역에 메타버스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차기 회의에서 메타버스 관련 활동 여부를 검토한 뒤 반영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차기 회의에서 IoT 오픈소스 가이드개발을 위한 기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EG IS는 ICT 정보보호 이슈를 다루는 그룹으로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문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에서 제안한 '클라우드 보안 브로커 가이드라인' 문서가 최종 승인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신규 작업문서를 제안하였으나, 문서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존 문서와의 차별점을 더 보완한 후 차기 회의에서 새로 제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외에도 한국은 기고서를 통해 'DID 확장 NFT 구조', '사회이슈 기반 APT 공격과 보안 시스템', '다중 도메인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Usable Security', 'SASE 기반 보안 엣지' 등 국내에서 연구된 다양한 보안기술을 공유하였다.

EG MA는 멀티미디어 응용 관련 논의를 수행하는 그룹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별도의 보고서나 가이드라인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메타버스·DID·CDN 등 세 가지 신기술 서비스의 국가별 활용도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신규 문서 개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 EG의 작업 범위에 메타버스를 추가하여 연구 영역 확대를 도모하였다.

EG AU는 ICT 기술의 접근성 관련 논의를 수행하는 그룹으로 한국 주도로 문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게 세 건의 문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자연스러운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위한 사용성 평가 보고서'가 신규 아이템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개발 중인 '아태지역 모바일 접근성 실태' 및 '사물인터넷 접근성 유즈케이스' 문서의 초안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였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문서인 응급통신 중계서비스 보고서의 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회원국에게 회람하기로 결정하였다.

4. WTSA-24 대응준비반 회의 결과

WTSA는 ITU-T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ITU-T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APT에서는 4년마다 개최되는 WTSA에서 아태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APT WTSA 대응준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WTSA-24 대응준비반 1차 회의에서는 의장단 구성 논의가 주요 의제로 진행되었다. 의장단은 관례에 따라 ASTAP 의장단이 동일하게 수임하였으며, 산하 세 개의 작업반에서는 한국이 의장 1석, 부의장 2석을 수임하였다.

WTSA-24는 2024년 10월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대응준비반은 그 전까지 4회의 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공동기고서 및 입장 개발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5. 맺음말

이번 ASTAP 및 WTSA-24 대응준비반 회의는 COVID-19로 인해 그간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회의로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이 의장국을 연임하였을뿐만 아니라, 향후 ASTAP의 방향을 논의하는 TF의 의장을 수임함으로써 아태지역 표준화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개최되는 WTSA-24는 ITU 구조조정 등 지역·국가 간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가 진행되는 만큼, WTSA-24 대응준비반의 역할의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장을 맡고 있는 한국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출처: TTA 저널 제207호